**교제와 나눔**

**\*\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\*\***

**ㆍ사순절:**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과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.

**ㆍ말씀일기 교실:** 오늘 2부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, 제 5강

**ㆍ섬김이 1일 수련회(2차):** 은혜 중 마침, 불참자 12인

**ㆍ헌금증명서:** 재정부(김한진, 백능현)에서 받아가세요.

**ㆍ병상:** 한정우 집사 부친

**ㆍ귀가:** 단주현

**ㆍ한국방문:** 손교훈(3/6-17)

**ㆍ생일:** 조영은, 윤다솜, 김다니엘, 김진수

**◆ 말씀일기 일정**

일/민3:40-51 월/민4:1-33 화/민4:34-49 수/민5:1-10

목/민5:11-31 금/민6:1-12 토/민6:13-27 일/민7:1-11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34독, 한정우 집사 1독)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3월 5일** | **3월 12일** | **3월 19일** | **3월 26일** |
| **예배기도** | 김종필 | 박요셉 | 백능현 | 권순아 |
| **말씀일기** | 강은주 | 황정은 | 강일구 | 김좌겸 |
| **안내위원** | 예배부, 정기승 | | | |
| **헌금위원** | 예배부, 김다니엘 | | | |
| **애찬봉사** | 밥상 하나 | 밥상 둘 | 나라주일 | 밥상 셋 |

34-10호 2017년 3월 5일



**“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"**(롬1:17)

**담임목사/ 손교훈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협동목사/ 이광열** Mike Lee

☏ 0211-4166 3284 HP. 01577-388 7498

**교육목사/ 이재용** HP. 0157-5346 6942

주일 1부예배: 12:15

주일 2부예배: 14:00

주일 유초등부 예배: 14:00

주일 청소년부 예배: 14:00

금요기도회: 20:00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**

**주 일 예 배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/Eingang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송영/Eingangs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찬양대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26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. 교독문124번 ………………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......………… 540장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김종필 집사 |
| 말씀일기/Bibeltagebuch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…..........…. 마태 17:14-27 …..….....…........... | 강은주 집사  다 함 께 |
| 찬양/Loblied 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 | 찬 양 대 | |
| 설교/Predigt 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…………. **산 믿음** ….…….…………………… | 손교훈 목사 |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......………………… 542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합심기도/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봉헌/Kollekte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 함 께  다함께  인 도 자 |
| 교제와 나눔/Bekanntmachung ……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 함 께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
**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**

**◈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-민3장 ‘나는 목사다’ ◈**

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“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. 레위인은 내 것이라”(45). “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”(15). 레위인은 세상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도록 세워졌다. 레위인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. 레위인은 모든 처음 것의 대표이고,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. 그래서 다른 지파들 모두는 20세 이상의 “싸움에 나갈 만한 자”(민1장)를 계수했던 것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일 개월 이상 된 남자 모두를 계수했다.

존재 자체로 소중한 레위인. 그 중에서도 “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은 제사장들”. 그러나 레위기 10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아론의 때부터 벌써 문제가 있었다. 아론의 네 아들 중 두 아들 “나답과 아비후가…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…죽”는(3-4) 일이 벌어졌다. ‘다른 불’을 드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, 분명한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.

제사장은 자신이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는 존재이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 레위인은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.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. 오늘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었나? “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” 찬양하며 기도하지만, 왕왕 내 안에서는 엉뚱하게 미움과 교만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른다. 그래서 나는 물 같은 성령,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는지도 모른다. 물론 거기에도 시기의 강물이 흐르고, 원망의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.

고국에서는 한 때 “나는 가수다”라는 프로그램이 화제였다. 그 언젠가 숲 속을 거닐다 멈춰 서서 “나는 목사다”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고 큰 숨 쉬던 때가 기억난다. 그렇다. ‘나는 목사’, ‘나는 성도’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! ‘나는 하나님의 소유’라는 이 한 마디 선언은 삶의 자세와 방향을 뿌리에서부터 달라지게 한다. 내게서 ‘다른 불’(4)이 역사하지 않도록 오늘 다시 가슴에 이 도장을 찍는다. ‘나는 목사다.’

**◈절기 및 설교 본문 예고 ◈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3월 5일** | 사순절 첫 주일 마 17:14-27 |
| **3월 12일** | 사순절 둘째 주일, 이재용 목사 설교 마 26:57-68 |
| **3월 19일** | 사순절 셋째 주일 마 26:69-27:10 |
| **3월 26일** | 사순절 넷째 주일, Beginn der Sommmerzeit 마 27:11-26 |